

아세안 “미얀마 군부, 정치범 석방해야”

화상 정상회의 의장 성명 공개

폭력 중단 등 4월 합의 이행 촉구

한반도 비핵화 조속 협상 강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군부에 외국인인 포함한 정치범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의장 성명을 공개했다.

27일 아세안 사무국에 따르면 올해 의장인 하사날 불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전날 미얀마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화상으로 제38차 및 39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열어 역대 현안을 논의한 뒤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의장 성명은 아세안 정상들이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잇단 폭력과 사망자 발생 등 현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외국인인 포함한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다.

이어 올해 4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

군부의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도출한 5개 합의사항 이행도 촉구했다. 당시 합의사항은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건설적 대화, 인도적 지원, 아세안이 임명한 특사의 대화 중재 및 미얀마 방문 등이다.

성명은 “우리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존중하되, 우리는 법치주의와 선정(good governance), 민주주의, 헌법통치라는 아세안 현장을 지키고, 미얀마 사태에 아세안 원칙을 적용하면서 적절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얀마가 여전히 아세안 가족의 일원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미얀마가 많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려면 시간과 정치적 여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아세안은 지난 2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뒤 군부의 탄압으로 사망자와 구금자들이 속출하자 내정 불간섭 원칙을 깨고 5개항의 합의사항 도출과 특사 파견 등 행동에 나섰지만, 획기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이 홀리딩 최고사령관의 정상회의 참석을 불허하고, 고위 외교관을 ‘비정치적 대표’로 초청하자 미얀마는 이번 회의에 아예 불참했다.

의장성명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중 갈등과 관련한 우려도 담았다. 성명은 “우리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높이고, 분쟁을 증폭시켜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평화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아예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경제회복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 지금처럼 대응하면 지구온도 2.7°C ‘충격적 상승’”

유엔환경계획 배출간극 보고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7배 올려야”

각국의 탄소 배출 감축량이 목표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현 대응 수준으로는 지구 평균 기온이 최소 2.7°C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환경계획(UNEP)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 개최를 앞둔 이날 ‘2021 배출간극(emissions gap)’ 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내, 나아가 1.5°C 이하로 제한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UNEP는 이같이 기존 상승폭을 1.5°C 제한하려면 탄소 배출량이 55%까지 감축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지난달까지 약 120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그 외 국가의 기후 관련 공약을 평가한 결과, 이 계획이 온전히 이행돼도 2030년 말까지 줄어드는 배출량은 필요치의 7분의 1에 불과한 7.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NDC는 파리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로 5년마다 달성 여부를 점검받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보다 강화된 NDC를 제출한 국가 역시 대상국 중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의 경우 새로운 NDC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브라질·호주 등도 2015년에 비해 개선된 NDC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발발한 지난해 전 세계 곳곳이 봉쇄되면서 배출량이 이례적으로 5.4% 감소했으나, 여전히 목표 달성에는 요원하다고 전망했다. 각국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고 소비를 증진하는 데 재정을 투입하면서 기후 변화 대응이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21년 한해에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30억t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2030년까지 배출량을 280억t가량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가 없다면 지구의 온도가 21세기 말까지 2.7°C 오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유엔 보고서는 경고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각국 지도자가 COP26을 준비하는 가운데 천둥 같은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어 “많은 나라들이 지속가능하고, 지구를 살리는 방향으로 코로나19 재정과 복구자원을 투자할 엄청난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연합뉴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백신 접종 거짓말하면

벌금 1000만원·징역 6개월

시드니 등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증명서를 보이면 1천만원 가까운 벌금을 물거나 6개월의 실형에 처해진다.

27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언에 따르면 브래드 하워드 NSW 보건장관은 전날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공공보건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는 백신 접종을 허위로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거나 부정확한 사실을 업소 등 타인에게 제공·게시·생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만1000호주달러(약 960만원)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NSW주에서는 지난 6월 시작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장기 봉쇄령이 내리면서 몇달 전만 해도 10%를 밑돌던 백신 접종 완료율이 급증 추세를 나타냈다. 확산세를 보이는 ‘델타 변이’를 막을 유일한 대책은 백신 접종뿐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10월 들어 접종률이 70~80%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이에 NSW주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자유로운 외출과 소매업소 이용을 허용하는 등 대부분의 봉쇄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특히 식당·카페·미용실 등의 업소를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연합뉴스



에밀 졸라 증손녀 만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파리 인근 메당에 있는 작가에밀 졸라(1840~1902)의 집을 방문, 고인의 증손녀 마르틴 르 블롱-졸라와 대화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졸라의 집에 ‘드레퓌스 사건’과 관련된 첫 기념관이 개관되는 것에 맞춰 이곳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캐나다 3기 내각...남녀 동수에 여성 국방장관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3기 정부의 내각 구성이 마무리돼 26일(현지시간) 출범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날 트뤼도 총리가 자신을 포함해 39명으로 구성된 장관 지명자 명단을 발표했다

가장 두드러진 인선으로 국방부 장관에 여성인 에니타 애너드 전 공공조달부 장관이 꼽힌다.

에너드 장관은 1990년대 이후 역대 두 번째 여성 국방장관이 됐다. 그는 군 지도부에서 잇달아 터진 성 비위 사건과 군 문화의 근본적 개혁을 이

루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외무부 장관에는 퀘벡 출신의 멜라니 졸리 전 경제개발 겸 공영어 장관이 승진, 발탁됐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 장관을 비롯한 7명은 유임됐다.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에는 국제 환경운동 단체 그린피스 출신의 스티븐 길보 전 문화유산부 장관이 임명돼 논란을 빚었다. 제1야당인 보수당은 즉각 트뤼도 총리가 석유 가스 산업에 적대적 정책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캐나다의 대표적 산유지인 앨버타주의 제이슨 케니주 총리는 “매우 문제가 많은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미국 발전용 석탄 재고 24년만에 최저

가스값 급등에 전력 소비 급증

7·8월 두 달 연속 13%씩 줄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여파로 미국의 화력발전용 석탄 재고가 2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통계를 인용해 8월 기준 발전용 석탄 재고가 8430만t으로 199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부터 회복하면서 전력 소비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발전소 연료 사용량도 증가했다.

이에 천연가스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고, 연쇄적으로 발전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됐다. 미국의 대형 발전소들이 천연가스와 재생연료 사용을 늘리면서 미국의 전체 석탄 재고는 수년간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의 석탄 재고 감소는 발전소들이 겨울을 코앞에 두고 재고 석탄을 태우며 발전기를 돌리고 있음을 뜻한다. 발전소의 석탄 이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석탄 생산업체 ‘아크 리소시스’의 최고 경영자

폴 랭은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석탄 업계는 발전소들이 생각하는 만큼 석탄 수요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올해 발전소들은 19% 더 많은 석탄을 소비하는 반면, 석탄회사들은 수년간 생산량을 줄여왔기에 올해 생산량 증가율은 1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를라호마주 광산업체인 ‘얼라이언스 리소스 파트너스’ 최고경영자 조 크래프트는 “우리 고객을 위한 석탄 재고는 심각한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석탄 재고 감소세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확산하면서 더 빨라졌다. 상반기만 해도 재고 추세는 예년과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7월에는 전월보다 13% 감소했고 8월에는 또다시 13% 줄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중부 에팔라치아 산 석탄 가격은 연초 이후 39% 급등해 t당 75.50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우드 매켄지의 조사 책임자 매트 프레스턴은 “올해 말까지 총 석탄 재고는 5000만t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고량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 겨울이 춥고, 많은 이들이 추운 겨울에 대해 얘기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조만간 개선될 여지는 없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카드
VISA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 | | | |
|-----------------------|-----------------------|----------------------|-------------------------|---------------------|
|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 쌍촌지점 062)381-6551~2 | 유동지점 062)512-1984~5 |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 동운지점 062)528-2640~2 |
| 상무동지점 062)372-3741~2 |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 농성지점 062)361-4472~4 | 운암지점 062)527-3295~6 | 비틀지점 062)381-1971~2 |
| 용산지점 062)526-0222~3 | 화정지점 062)372-0421~3 | 동림지점 062)513-8521~3 | 유덕지점 062)373-3235~6 | 운천지점 062)371-2772~3 |
| 지평지점 062)381-8212~3 |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 |